

아산(牙山) 종가(宗家) 소장

만퇴당(晩退堂) 홍만조(洪萬朝) 초상화의 특징과 문화재적 가치

강관식

(한성대 예술학부 교수)

1. 홍만조 초상화의 표제(標題)와 화기(畫記) - 1700년 평안감사 초상화
2. 홍만조 초상화의 문헌 기록 - 18세기 전반 평양 생사당(生祠堂) 봉안 초상화
3. 홍만조 초상화의 특징 - 중국식 도상(圖像)과 서양식 화법(畫法)의 새로운 양식

지난 250여 년간 아산의 종가에 소장되어 온 만퇴당(晩退堂) 홍만조(洪萬朝, 1645-1725)의 초상화는 사모단령(紗帽團領)을 착용하고 교의(交椅)에 앉아있는 견본(絹本) 채색(彩色)의 대형 전신상(全身像)으로서, 조선후기에 명청대(明清代)의 초상화 도상(圖像)과 서양화법이 전래되며 새로운 초상화 양식이 형성되어 나가던 초창기의 과도기적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역대 평안감사의 위패와 초상화를 모셔왔던 평양의 생사당(生祠堂)에서 1700년부터 1760년대까지 봉안해왔던 초상화의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초상화이다(도 1, 2, 3).(초상화의 크기는 145.1×79.2cm, 족자 크기는 206.7×91.2cm이다).

다만, 이러한 사실은 홍만조의 초상화에 후손들이 써넣은 표제(標題)와 화기(畫記)의 내용을 고증하여 밝히고, 이를 다시 조선 중후기의 초상화 양식사와 연관시켜 정합적으로 해석할 때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초상화는 조선후기 초상화의 양식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초상화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동안 영당(影堂)에 봉안한 채 제례(祭禮)를 행해오는 과정에서 곳곳이 박락되고 찢어지며 상하축도 소실되는 등 훼손이 심한 상태인데, 이는 이 초상화의 전래 과정과 사용 맥락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초상화의 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급히 문화재로 지정하여 지자체 차원의 면밀한 관리 아래 전문적인



그림 1 홍만조 초상(전도)

복원수리와 보존대책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2 아산 흥만조 종가 영당(자은영당)



그림 3 영당의 감실

이 조사 보고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살피, 이 초상화의 문화재적 가치를 밝히고 이를 잘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1. 흥만조 초상화의 표제(標題)와 화기(畫記) - 1700년 평안감사 초상화

이 초상화의 주인공인 흥만조는 본관이 풍산(豊山), 자가 종지(宗之), 호가 만퇴당(晩退堂)이다. 그는 대사헌 모당(慕堂) 홍이상(洪履祥, 1549-1615)의 증손으로서, 부친은 현감 홍주천(洪柱天, 1618-1671), 모친은 증영의정(贈領議政) 김광찬(金光燦, 1597-1668)의 딸 안동김씨(安東金氏, 1616-1664)이다. 따라서 그는 선조(宣祖)의 장녀 정명공주(貞明公主, 1603-1685)와 영안위(永安尉) 홍주원(洪柱元, 1606-1672)의 5촌 조카이자,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외증손(外曾孫),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의 생질, 몽와(夢窩) 김창집(金昌集, 1648-1722)과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1651-1708),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의 고종 사촌형이 되는 명문가 출신의 문인 관료이다. 그는 1678년(숙종 4) 문과에 급제하고 1696년 사은부사(謝恩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7도의 관찰사를 두루 지낸 뒤, 벼슬이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에 이르고 사후 정익(貞翼)의 시호(諡號)가 하사되었다. 영안위와 청음의 후손들이 대개 서인이 된 것과 달리, 그는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을 변호하는 등 남인으로 활동했지만, 당색이 강하지 않고 외가가 서인의 명문가였기 때문에 당쟁과 환국이 심했던 숙종대에도 정치적으로 큰 부침을 겪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1714년에 70세가 되며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올라 기사(耆社)에 들어가 1719년 숙종의 기로소(耆老所) 입사(入社)를 기념하여 제작된 <<기사계첩(耆社契帖)>>에도 75세 초상화가 실려 있는데, 국보 325호로 지정된 이 <<기사계첩>>의 원본이 종가에 이 초상화와 함께 전래되어 조선후기 초상화사에서 매우 주목되는 인물이다(도 4, 5).



그림 4 기사계첩 표지



그림 5 기사계첩 홍만조 초상(좌)

그런데 이 홍만조의 전신(全身) 교의좌상(交椅坐像)은 상부의 좌우에 후손들이 단정한 해서체로 써넣은 표제(標題)와 화기(畫記)가 있어(도 6, 7), 이 초상화의 주인공이 홍만조임을 분명하게 말해주며, 이 초상화가 그려진 시기와 용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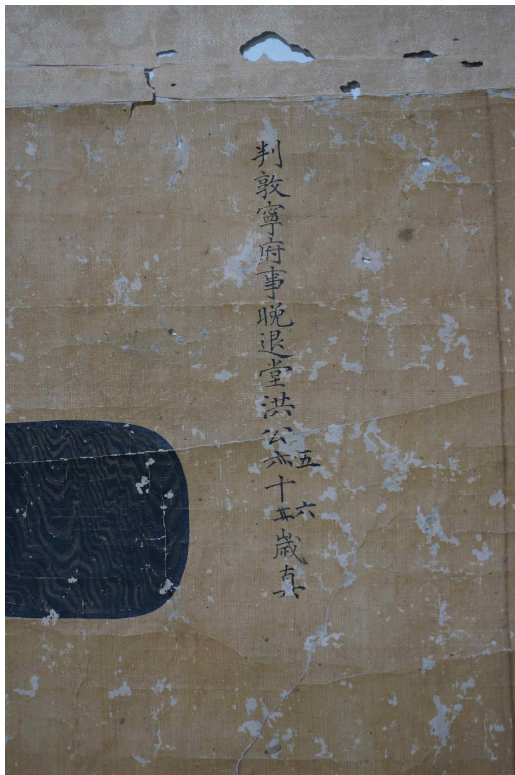


그림 6 홍만조 초상 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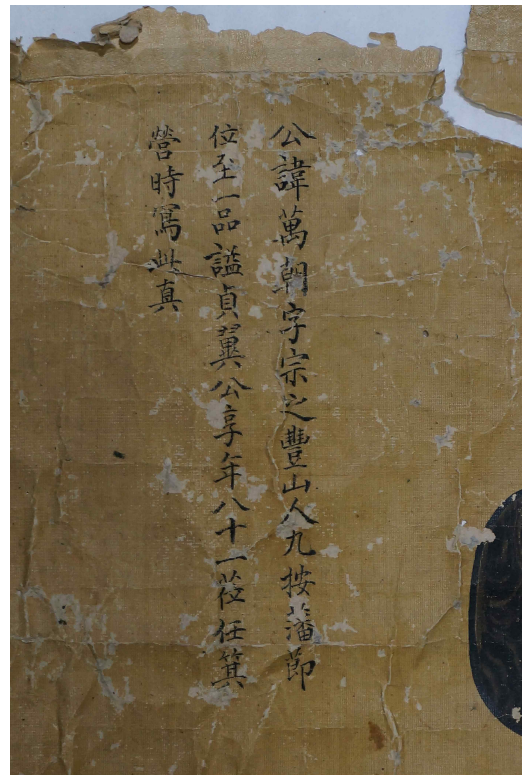


그림 7 홍만조 초상 화기

(1) 우측 상부 표제 : “判敦寧府事 晩退堂 洪公六十二歲眞”

(판돈령부사 만퇴당 홍공 62세 초상화)

(2) 좌측 상부 화기 : “公諱萬朝, 字宗之, 豊山人. 九按藩節, 位」

至一品, 諡貞翼公, 享年八十一. 莅任箕」

營時, 寫此眞.”

(공은 이름이 만조요 자가 종지로서 풍산인이다. 아홉 번 관찰사를 지내고, 품계가 1품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정익공이고, 향년 81세이다. 평안도관찰사로 나갔을 때 이 초상화를 그렸다.)

그런데 이 표제와 화기는 내용상 서로 모순되어 다소 당혹스런 느낌을 준다. 즉 표제에 쓰인 대로 이 초상화가 “62세 초상화”라면, 이 초상화는 1706년에 그린 것이 되는데, 당시 홍만조는 함경도관찰사였기 때문에 평안도관찰사로 나갔을 때 그렸다는 화기 내용과 맞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화기에 쓰인 대로 “평안도관찰사로 나갔을 때 그린 초상화”라고 하면, 홍만조가 평안도관찰사로 나갔던 54세에서 56세 되던 1698년에서 1700년 사이에 그린 것이 되어, 표제에서 말한 62세 초상화와 맞지 않는다. 이런 모순을 후손들도 인지했던 듯, 현재는 후대의 누군가가 “六”자와 “二”자 위에 “ ” 표시를 하여 지운다는 표시를 한 뒤, 그 옆에 작게 “五”자와 “六”를 써넣어서, “六十二”를 “五十六”으로 수정해 놓았다(도 6). 그렇다면, 서체로 볼 때 한 사람이 동시에 쓴 것으로 보이는 이 표제와 화기는 언제 누가 쓴 것이고, 왜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써 넣은 것인가? 또 표제를 수정한 것은 언제 누가 한 것인가? 그렇다면, 홍만조의 초상화가 그려진 것은 정확히 언제이고,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이를 명확하게 고증하여 밝힐 수 있는가?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현재 홍만조의 종가에 전하는 홍만조의 전기(傳記) 자료와 조선 중후기의 초상화 양식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홍만조 초상화는 평안도관찰사를 이직하고 귀경하던 1700년의 56세 때 평양에서 그린 초상화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자료는 홍만조의 서거(1725) 직후 아들들이 쓴 『판돈령공가장(判敦寧公家狀)』에서 “경진년(1700) 가을에 조정으로 돌아왔는데, 관서(關西)의 백성들이 초상화를 걸어놓고 생사당(生祠堂)에서 제사를 지냈다(庚辰秋遷朝, 西民揭像而生祠之)”는 기록이다(宗家 소장의 『家乘』 亨冊 所收). 이는 화기에서 “평안도관찰사로 나갔을 때 이 초상화를 그렸다(莅任箕營時, 寫此眞)”는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이는 홍만조와 교류가 많았던 조덕린(趙德鄰, 1658-1737)이 1726~7년 함경도 종성(鍾城)에 유배되었을 때, 홍중인(洪重寅, 1677-1752)과 홍중징(洪重徵, 1682-1761)이 가장(家狀)을 보여주며 부친의 묘지명을 써달라고 부탁하자 써 준 홍만조의 묘지명에서도 “경진년(1700) 가을에 벼슬이 갈려 돌아왔는데, 관서의 백성들이 초상화를 그려 생사당에서 제사지냈다(庚辰秋遞還, 西民繪像而生祠之)”고 밝힌 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趙德鄰, 『玉川集』, 권14, 「崇祿大夫判敦寧府事兼判義禁府事知春秋館事世弟左賓客晩退堂洪公墓誌銘并序」.) 그리고 후술하듯, 영조대의 1730년과 1760년의 문헌에서도 당시 평양 생사당에는 홍만조의 초상화가 걸려있었다고 한 기록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이 홍만조 초상화의 가장 고유하고 개성적 특징인 중국식 도상(圖像)과 서양화법을 구사한 얼굴 묘사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평양에서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던 새로운 초상화법이기에 때문에 양식사적으로도 이러한 기록을 뒷받침해준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62세진”이라는 잘못된 표제는 언제 누가 쓴 것이고, 이를 “56세진”으로 수정한 것은 언제 누가한 것인가? 정확한 실상은 미상이다. 그러나 화기에 ‘정

익(貞翼)’이라는 시호가 쓰인 것으로 볼 때, 이 화기는 정익의 시호가 하사된 1748년 이후에 쓴 것이 분명하며, 이와 서체(書體)가 같은 표제도 이때 같이 썼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홍만조의 가장을 써서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에게 묘갈명(墓碣銘)을 부탁하는 등 홍만조를 기리는 일에 계속 힘쓰며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아들 홍중징(洪重徵, 1682-1761) 생존시에는 이런 잘못된 표제를 쓰지 않았을 것이며, 최소한 홍중징이 사망한 1761년 이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림 8 이춘강 이모 홍만조 초상(1936년)

堂) 홍공(洪公) 56세진(五十六歲眞)”이라고 수정된 표제로 개제(改題)해 놓았다(도 9). (十一代孫 洪起駿 編, 『自隱影堂誌』(宗家所藏 未刊行本 便覽), p.77). 따라서 “62세진”을 “56세진”으로 수정해 놓은 것은 대략 이때였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이때 초상화가 남아 이모하며 표제와 화기의 모순을 알고 이를 수정한 뒤, 이모본에는 수정된 내용을 써넣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이와 달리 그 이전에 누군가가 모순을 알고 표제를 수정해 놓아 이모본에는 이 수정된 내용을 써넣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애초에 홍만조가 62세 되던 1706년은 함경도관찰사로 재직하던 때인데, 왜 화기에는 “평안도관찰사로 나갔을 때 그랬다”고 쓰고, 표제에는 함경도관찰사로 나갔을 때 나이인 “62세진”이라는 표제를 써넣어서 표제와 화기의 내용이 맞지 않는 기록을 남겨놓았는가는 미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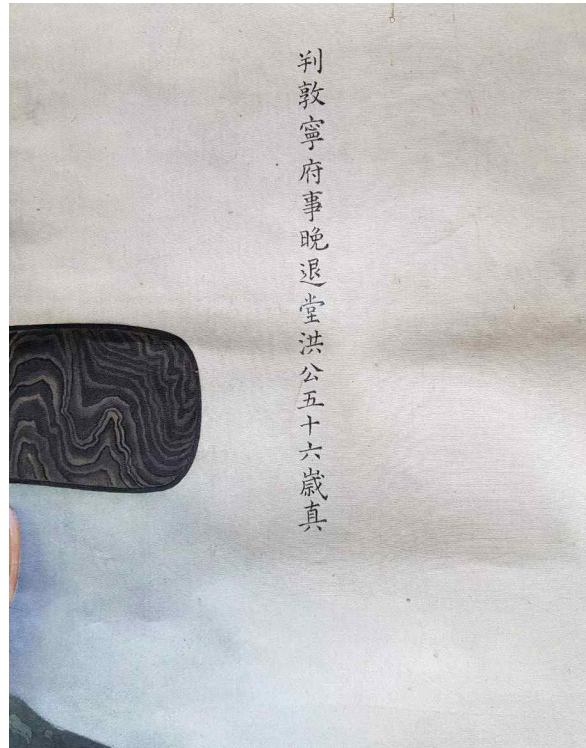


그림 9 이춘강 이모 홍만조 초상의 표제

그렇다면, 이를 “56세진”이라고 수정한 것은 언제 누가 한 것인가? 현재 종가에 같이 전하는 이 초상화의 이모본(도 8)은 “1936년 9월에 서울 서대문(西大門) 행촌동(杏村洞)에 거주하던 이춘강(李春岡) 화백(畫伯)이 그린 것”이라고 하는데, 이 이모본에는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 만퇴당(晩退堂)

堂) 홍공(洪公) 56세진(五十六歲眞)”이라고 수정된 표제로 개제(改題)해 놓았다(도 9). (十一代孫 洪起駿 編, 『自隱影堂誌』(宗家所藏 未刊行本 便覽), p.77). 따라서 “62세진”을 “56세진”으로 수정해 놓은 것은 대략 이때였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이때 초상화가 남아 이모하며 표제와 화기의 모순을 알고 이를 수정한 뒤, 이모본에는 수정된 내용을 써넣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이와 달리 그 이전에 누군가가 모순을 알고 표제를 수정해 놓아 이모본에는 이 수정된 내용을 써넣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애초에 홍만조가 62세 되던 1706년은 함경도관찰사로 재직하던 때인데, 왜 화기에는 “평안도관찰사로 나갔을 때 그랬다”고 쓰고, 표제에는 함경도관찰사로 나갔을 때 나이인 “62세진”이라는 표제를 써넣어서 표제와 화기의 내용이 맞지 않는 기록을 남겨놓았는가는 미상이다.

2. 홍만조 초상화의 문헌 기록 - 18세기 전반 평양 생사당(生祠堂) 봉안 초상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홍만조 초상화가 평안감사로 재직하던 1700년의 56세 때 그린 것이라면, 이 초상화는 홍만조의 행장과 묘지명에서 말했던 바로 그 평양의 생사당(生祠堂)에 봉안했던 초상화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평양의 생사당에 봉안했던 홍만조의 초상화에 대해 언급한 18세기의 문헌 자료들을 통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증하여 밝혀보도록 하겠다.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만조의 서거(1725) 직후 아들 홍중인(洪重寅)과 홍중징(洪重徵)이 쓴 「판돈령공가장(判敦寧公家狀)」에서는 “경진년(1700) 가을에 조정으로 돌아왔는데, 관서(關西)의 백성들이 초상화를 걸어놓고 생사당(生祠堂)에서 제사를 지냈다(庚辰秋還朝, 西民揭像而生祠之)”고 하였다. 그리고 홍만조와 교류가 많았던 조덕린(趙德鄰, 1658-1737)이 1726~7년경에 쓴 묘지명에서도 “경진년(1700) 가을에 벼슬이 갈려 돌아왔는데, 관서의 백성들이 초상화를 그려 생사당에서 제사지냈다(庚辰秋遞還, 西民繪像而生祠之)”고 하였다.

생사당은 본래 지방관의 선정(善政)이나 공적(功績)을 기리기 위해서, 지방관이 이임할 때 지방민들이 생존해 있는 지방관의 사당을 짓고 위패나 초상화를 모시고 기리던 것으로서, 대략 고려말부터 건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점차 그 폐단이 나타나고, 성리학이 확산되며 이를 음사(淫祀)로 보아 억압하기 시작했는데, 임진왜란에 공을 세운 명나라 장수와 관리들을 위하여 평양에 무열사(武烈祠)라는 생사당을 짓고 초상화를 봉안한 뒤 제사를 지내자 평양을 중심으로 다시 성행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무열사 설립을 주도했던 평안감사 이원익(李元翼, 1547-1643)이 이임한 1595년경에 평양 사람들이 생사당을 짓고 이원익의 초상화를 그려 모시면서부터 이후 하나의 전통으로 18세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1727년부터 1730년까지 평안감사를 지낸 윤유(尹游, 1674-1737)가 편찬한 『속평양지(續平壤志)』에 의하면, 평양의 창광산(蒼光山) 동쪽에 있는 생사당에는 이원익 이하 홍만조는 물론 조태구(趙泰耆)까지 총 14인의 역대 평안감사 초상화가 봉안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1760년에 동지사(冬至使) 서장관(書狀官) 이휘중(李徽中, 1715-1786)의 자제군관(子弟軍官)으로 연행(燕行)했던 이익봉(李義鳳, 1733-1801)이 11월 11일에 평양을 지나며 본 생사당 안에는 이원익과 홍만조 등 10인의 초상화가 봉안되어 있었다고 하였다(李義鳳, 『北轅錄』, 권1). 따라서 이상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홍만조가 평안감사를 이직하던 1700년 가을에 평양 사람들이 홍만조의 초상화를 그려 생사당에 봉안한 이래, 1760년 겨울까지 평양의 생사당에 홍만조의 초상화가 계속 봉안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의하면, 영조 40년(1764) 2월 18일에 영의정 홍봉한(洪鳳漢, 1713-1778)이 생사당의 폐해를 아뢰자, 영조가 생사당(生祠堂)에 봉안했던 초상화와 위판은 후손들이 가져다가 매립하고 각도의 생사당은 모두 훼철한 뒤 이후 절대 엄금한다는 명을 내린다. 그리고 영조 45년(1769) 4월 27일에는 영의정 홍봉한이 평양의 이원익 생사당이 이미 훼철되었음을 언급한다. 또한 1774년 4월부터 1775년 겨울까지 평양감사를 지낸 채제공(蔡濟恭)도 감사 시절 이원익의 생사당이 있던 곳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워 이를 기념했다고 하였다.(蔡濟恭, 『樊巖集』, 권57, 「完平府院君李相國(元翼)生祠遺墟碑」). 따라서 평양의 생사당은 1764년 2월 이후 1769년 4월 사이의 어느 시기에 훼철되고, 생사당에 봉안했던 초상화는 후손들이 가져다가 매립하거나 봉안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해 온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종가에 소장된 이 홍만조의 초상화는 1700년 가을에 홍만조가 평안감사를 이직하자 평양 사람들이 그래서 이원익 이하 역

대 평안감사들을 모신 평양의 생사당에 봉안했는데, 1764년 2월에서 1769년 4월 사이의 어느 시기에 영조의 어명으로 생사당이 훼손되자 후손들이 모셔다가 집안의 영당에 봉안해 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이 초상화의 표제와 화기도 이처럼 18세기 후반 이후에 후손가에서 봉안하며 써넣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표제와 화기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사실로 볼 때, 이는 최소한 홍만조의 이력과 이 초상화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홍중징이 사망한 1761년 이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던 우리의 추정과도 거의 일치한다. 더구나 만약 평양의 생사당에서 이 초상화를 가져온 직후에 표제와 화기를 썼다면 이런 모순되는 착오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후손가에서 봉안한 지 꽤 시간이 지난 뒤에 당시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던 후손들이 뒤늦게 표제와 화기를 써넣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3. 홍만조 초상화의 특징 - 중국식 도상(圖像)과 서양식 화법(畫法)의 새로운 양식

홍만조의 초상화가 1700년에 평양에서 그려져 1760년대까지 평양의 생사당에 봉안되었던 초상화라는 사실은 도상(圖像)과 화법(畫法) 상 1700년경 전후에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중국식 도상과 서양식 화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홍만조 초상화의 전체적인 도상은 기본적으로 몸은 정면관을 취하고 얼굴만 약 구분면(九分面)에 가깝게 약간 오른쪽을 향하고 있다. 복식은 기본적으로 모정이 높고 잠자리 날개 문양이 있는 오사모를 쓰고, 녹색 운문단(雲紋緞)의 단령(團領)에 쌍학(雙鶴) 흉배(胸背)와 학정금대(鶴頂金帶)를 착용했다(도 10). 그리고 교의자에는 호피(虎皮)나 표피(豹皮)를 두르지 않고, 발을 올려놓는 의담(椅踏) 위에도 소문(素文)의 돛자리만 깔았으며, 바닥에는 채전(彩氈)이나 화문석(花紋席)을 그리지 않은 채 비단 바탕을 그대로 남겨놓았다(도 11).



그림 11 홍만조 초상의 상반신



그림 10 홍만조 초상의 하부



그림 12 홍만조 초상의 학정금대

이제 홍만조 초상화의 세부적인 도상적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초상화의 품대(品帶)는 품계에 따라 등급과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상화가 그려진 최소한의 상한(上限)과 하한(下限)을 알려주는데, 홍만조의 초상화는 종2품의 학정금대(鶴頂金帶)를 착용하고 있어 홍만조가 평안감사로 재직하던 1700년의 품계인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와 정확히 일치한다(도 12). 홍만조는 1693년에 종2품 가선대부에 오른 뒤, 1714년에 정2품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라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1721년에 종1품 하(下)의 승정대부(崇政大夫)에 오르고 1724년에는 종1품 상(上)의 승록대부(崇祿大夫)에 올랐다. 그리하여 홍만조의 초상화는 이 초상화뿐만 아니라, 1719년에 그려진 <<기사계첩>>의 초상화도 정2품의 삽금대(鍍金帶)를 착용하고 있어 그 당시 홍만조의 품계와 정확히 일치한다(도 5). 따라서 홍만조가 1700년 이후 품계가 더욱 높아져 1719년에는 정2품에 올라 삽금대를 착용하고 초상화를 그린 적이 있고, 1721년 이후에는 서대(犀帶)를 착용한 초상화를 그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상화가 그보다 낮은 종2품의 학정금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은 이 초상화가 애초 평양감사 시절에 그린 초상화임을 분명하게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3 이광정 초상(1609년) 그림 14 남벌 초상(1612년경) 그림 15 오두인 초상(1687년)

또한 일반적인 조선시대 초상화가 대개 손을 소매 안으로 집어넣어 공수(拱手)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홍만조 초상화는 양 손을 소매 밖으로 노출시켜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로 품대를 감싸 전 뒤 왼손은 허벅지를 짚고 있는 매우 현시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도 3, 10). 이런 자세는 본래 몽고족의 풍습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원대의 몽고족 황제 초상화에서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여 명청대에는 문인사대부 초상화까지 확산되며 중국의 초상화를 상징할 정도로 가장 전형적인 도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말에 원나라의 영향으로 이런 도상이 잠시 나타났지만, 조선시대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송나라 식의 공수 자세가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며 명나라 장수와 관리들이 대거 평양에 주둔하고, 또 평양에 이들을 기린 생사당이 건립되어 명나라 식의 초상화가 봉안되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17세기 초에 대명 외교를 담당했던 연행사들이 북경에서 중국 화가에게 이런 중국 식 초상화를 그려오며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광정(李光庭, 1552-1629)이 1609년에 연행하며 북경에서 중국의 초상화가 원승광(袁承光)에게 그려온 초상화(도 13), 그리고 남벌(南穰,

1561-1646)이 1612년의 연행 때 북경에서 그려온 초상화(도 14)는 초기의 대표적인 예이다.

다만, 이 중국식 초상화는 이후 양차의 호란(胡亂)을 거치며 잠시 잠잠했다가, 17세기 말의 강희(康熙)-숙종(肅宗) 대에 대청 관계가 다소 정상화되고 청나라 문화도 수용되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타나자, 일찍이 17세기 초에 이런 중국식 초상화가 전래되었던 평양 지역에서 성장했던 조세걸(曹世傑)과 김진여(金振汝) 같은 원외(院外)의 초상화가들을 중심으로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 오두인(吳斗寅, 1624-1689)이 평양감사로 있던 1687년에 조세걸이 평양 감영에서 그린 오두인의 초상화는 17세기 후반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도 15). 1700년에 평양에서 그려진 홍만조의 초상화가 당시의 일반적인 조선식 초상화 도상과 달리 색다른 중국식 초상화 도상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광정과 남별, 오두인의 초상화가 모두 교의자에 호피(虎皮; 이광정, 남별)나 표피(豹皮; 오두인)를 두른 뒤 완전한 정면관(正面觀)에 왼손으로 관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짚고 있어 충실히 중국식 도상을 따르고 있는 데 비해, 홍만조의 초상화는 호피를 생략하고 몸은 정면관이나 얼굴만 구분면(九分面)에 가깝게 약간 오른쪽을 보고 있으며, 손도 좌우가 바뀌어 오른손으로 관대를 잡고 왼손으로 허벅지를 짚고 있다. 그리하여 기본적으로는 중국식 도상을 따랐지만, 부분적으로 조선적인 감각과 분위기가 반영되어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도상적 특징과 함께 홍만조의 초상화가 평양에서 유행했던 중국식 초상화법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은 서양화법의 영향을 받은 청나라의 독특한 도말식(塗抹式) 얼굴 묘사법이다.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반의 전형적인 조선식 초상화는 먼저 먹선으로 얼굴의 윤곽선과 주름선을 분명하게 묘사한 뒤, 비단 뒤에서 분홍색을 배채(背彩)하고 비단 위에서 살색을 담채하며 얼굴색을 조절하고 명암을 표현하는 선염법(渲染法) 얼굴 묘사법을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홍만조의 초상화는 이와 달리 얼굴의 윤곽선과 주름도 지극히 가는 먹선으로 기본 형태만 간략하게 잡고 배채도 생략한 채, 얼굴 전체에 기본적으로 약간 어두운 살색을 칠한 뒤, 얼굴에서 도드라져 밝게 보이는 곳에는 흰색 연백(鉛白)을 열게 칠하고, 더 도드라져 더 밝은 부분에는 더 강하게 흰색을 칠해 나가며 명암을 표현하는 도말식(塗抹式) 얼굴 묘사법을 사용했다(도 16, 17, 18).



그림 16 홍만조 초상 얼굴



그림 17 홍만조 초상 얼굴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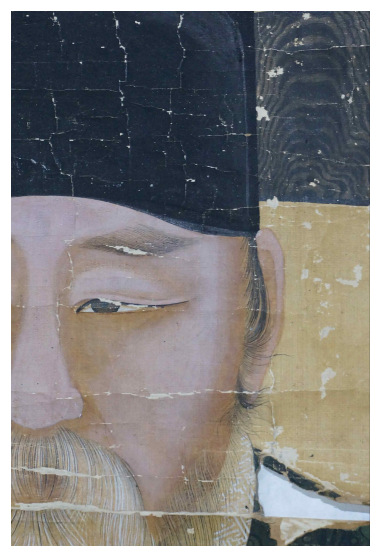


그림 18 홍만조 초상 얼굴 귀 세부

그리하여 언뜻 보면 마치 유화(油畵)로 그린 초상화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매우 이질적이고 색다른 느낌을 준다. 더구나 현재 얼굴의 갈색은 비단이 퇴색되며 더 어둡게 퇴색했으나, 흰색은 변하지 않아 갈색과 흰색이 분리되어 보이기 때문에 더욱 낯설고 어색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각대를 잡고 있는 오른손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보인다(도 12).

그런데 이런 도말식 얼굴 묘사법은 중국 초상화의 가장 특징적인 화법으로서, 중국에서 그려온 남별 초상화(1612년)와 김육(金堉) 초상화(1636년), 김재로(金在魯) 초상화(1738년)에서 특히 잘 엿볼 수 있다. 그리고 17세기 후반부터 조선의 화가들도 부분적으로 이런 도말식 얼굴 묘사법을 구사하기 시작했는데, 17세기말의 권대운(權大運) 초상화와 18세기초의 김창집(金昌集) 초상화는 이를 잘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도말식 얼굴 묘사법은 주로 중국식 초상화가 수용되던 초창기의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에만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흥만조의 초상화가 이런 도말식 얼굴 묘사법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초상화가 화기(畵記)에 씌어있는 것처럼 1700년에 평양에서 그려진 초상화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는 이 초상화가 1760년대까지 평양의 생사당에 봉안했다가, 1764년에서 1769년 사이에 영조의 어명으로 생사당이 훼손되자 후손들이 가져다가 봉안했던 바로 그 초상화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도판 목록

- 도 1. 작가 미상, 흥만조 초상(전도), 1700년, 견본 채색, 초상화 145.1×79.2cm, 족자 206.7×91.2cm, 아산 자은영당 소장
- 도 2. 아산 흥만조 종가 영당(자은영당)
- 도 3. 자은영당 내부 감실
- 도 4. 기사계첩 표지
- 도 5. 기사계첩 흥만조 초상
- 도 6. 흥만조 초상 표제(標題)
- 도 7. 흥만조 초상 화기(畵記)
- 도 8. 이춘강(李春岡) 이모(移摹), 흥만조 초상, 1936년, 아산 자은영당 소장
- 도 9. 이춘강 이모본 흥만조 초상 표제(標題)
- 도 10. 흥만조 초상 상반신
- 도 11. 흥만조 초상 하부
- 도 12. 흥만조 초상 학정금대(鶴頂金帶)
- 도 13. 명(明) 원승광(袁承光), 이광정(李光庭) 초상, 1609년
- 도 14. 명(明) 작가미상, 남별(南穰) 초상, 1612년
- 도 15. 조세걸(曹世傑), 오두인(吳斗寅) 초상, 1687년
- 도 16. 흥만조 초상 얼굴
- 도 17. 흥만조 초상 얼굴 세부
- 도 18. 흥만조 초상 얼굴 귀 세부